

오늘의 말씀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옹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사무엘상 16:7

오늘의 주요기사

- | | | | | | |
|-----|---------------|---|-----------------|----|---------------------|
| 2 | 하나님의 선교 책소개 | 6 | 청소년수련 여름수련회 | 9 | 겨자씨이야기 / 너나들이 홈커밍데이 |
| 3 | 창립 35주년 특집 | 7 | 결혼예비학교 / 산상수훈 | 10 | 교회사용설명서 |
| 4-5 | 35주년 창립기념 인터뷰 | 8 | 통일선교주간 수요일예배 요약 | 11 | 십자말씀이 |
| 5 | 이재철목사 설교요약 | 8 | 늘푸른대학 주방봉사 | 12 | 주차구역 안내 |



내 이름은 ‘주님의교회’입니다.

창립 35주년을 맞이하며 여러 곳에서 교회 이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이재철 목사님께서 설명해주신 교회 이름에 담긴 의미를 들으며(5면 참고) 다시금 이름이라는 것에 대해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고보니 지난 함글함글에서도 이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습니다. 2021년도에 연재했던 ‘아이에게 배우는 집사아빠’의 441호 내용도 이름에 대한 내용이었고, 2022년 성탄절에 발행된 461호의 1면도 이름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제목이 비슷합니다. <이름처럼 살아가는 삶>, <이름대로 살아가는 삶>. 그런 점에서 움직이는 교회인 나는 온전히 ‘주님의교회’인지를 생각해봅니다.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신지, 내 삶을 내가 좌지우지하려고 하지는 않는지, 함께 나누기보다 내 소유를 늘려 나 자신을 위해서만 사용하지는 않는지, 어디서든 나를 드러내려 하지는 않았는지를 생각해봅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름대로 살아가기 위해 노력했던 교회의 35년을 생각하며 우리도 ‘주님의교회’로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삶으로 살아야 하겠습니다.

함글함글

하나님의 선교 책소개 시리즈
하나님의 백성의 선교①

우리는 누구이며 무엇을 위해 여기있는가?

‘하나님의 선교’를 꿈꾸고 세우며 주님의교회는 1년 6개월을 달려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교가 무엇인지 담임 목사님의 설교와 몇 차례의 세미나와 함글함글 및 소책자를 통해 이해의 과정을 가졌습니다. 가정이 선교사를 재정으로 기도로 후원하기 시작했고, 석촌호수를 돌며 클린캠페인을 하였고, 23년부터는 월별 하나님의 선교 실천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이전에는 선교라 하면 교회의 여러 활동 중 한 파트로서 해외, 국내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선교사님의 활동 혹은 그러한 분들을 지원하는 것으로만 생각하였는데, 이제 우리는 선교는 ‘일상 속에 모든 영역에서 선교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이고 우리는 그분의 나라의 회복과 완성을 위해 참여하는 것이라고 이해합니다. 선교의 자리는 해외와 농어촌에서뿐만 아니라 내 마음과 가정과 직장 사회와 자연 등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회복되어야 할 모든 곳을 알게 되었으며, 선교의 방법은 복음전도만이 아니라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으로, 교회개척뿐만 아니라 내가 주님 거하시는 성전다운 삶을 사는 것으로, 무엇을 하는 것(Doing)에서 존재가 되어가는 것(Being)으로 의미를 확장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럼에도 성도들께 종종 듣는 질문은 ‘하나님의 선교를 꿈꾸고, 세우는 가정으로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전 해준 내용을 이해하고, 교회에서 진행한 활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충분하냐는 것이죠. 먼저든 생각은 우리가 서로 이렇게 질문을 하고 고민하고 답을 찾아가는 과정 자체가 긍정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전에는 고민하지 않아도 될 것을 우리는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이는 곧 하나님의 선교를 위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생겨나고 있다는 것이며, 성경 전체의 선교 이야기에서 일부가 되는 오늘 나의 위치를 확인하고 있는 것이며, 그럼 우리가 어디로 가야할지 방향감을 기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이해와 폭이 넓어져가고 있습니다. 크리스토퍼 라이트가 말했듯 우린 이미 선교 안에 있는 것이죠. 다만 중요한 것은 이정도면 충분하다며, 여기가 종사오니 하며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야 합니다. 성도들께서 질문을 주셨듯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에 대해 교회에서 주는 답을 넘어서는 가정마다 개인마다 나름의 답을 찾을 수 있고, 이에 대해 우리가 서로 공감할 수 있는 시스템 사고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함글함글에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하면 성도들께 도움을 드릴까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의 선교’ 혹은 ‘선교적 교회’를 주제로 가진 양서들을 시리즈로, 챗터별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책은 구약학자이면서 선교학자인 ‘크리스토퍼 라이트’의 『하나님의 백성의 선교』라는 책입니다. 그는 첫 번째 챗터에서 ‘우리는 누구이며 무엇을 위해 여기있는가?’라는 인생 최대의 질문 앞에 우리가 서 있다고 말합니다. 풀어서 말하면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선교(mission, 사명)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는 이들은 실제로 어떤 목적을 위해 존재하는가? 무엇을 위해 여기에 있는가? 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라이트는 이에 대해 대답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서 개념의 정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가 말한 내용들을 정리해봅니다.

(1)도대체 누구의 선교인가? 하나님의 선교여야 한다. 하나님 자신이 사명(mission)을 갖고 계신다. 하나님은 자신의 창조세계 전체를 향한 목적과 목표를 갖고 계신다. 바울은 이것을 “하나님의 모든 경륜”이라고 했다(행20:27) 그리고 그 신적 사명의 일환으로 하나님은 하나님과 함께 그 사명을 성취할 한 백성을 창조하셨다.

(2)선교(mission, 단수) : 창조세계 전체를 위한 웅대한 목적 아래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일과 그 목적에 따라 행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모든 일을 염두에 둔 것이다. 이는 개념적인 용어이며, 넓고 포괄적인 단어다. 이러한 개념 아래서 선교적(missional)이란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

(3)선교사역(missions, 복수) : 하나님의 백성이 관여할 수 있는 수많은 활동을 염두에 둔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 활동들을 통해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게 된다.

(4)온 세상 : 하나님의 선교는 그분의 창조세계 전체를 위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선교지라고 생각하면 ‘가까운 국내가 아니라 먼 외국’을 의미한다. 그러나 새로운 선교의 이해 아래 선교지는 모든 곳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당신이 사는 동네를 포함해서, 세계, 공적영역, 사업, 교육, 정치, 의료, 스포츠, 자연 등 모든 영역이 선교의 영역이다. 그것은 지리적이지만, 생태적이고 경제적이며 사회적이고 정치적이다.

(5)온 교회 :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인가? 우리는 교회를 떠올린다. ‘교회’라는 단어를 접하면 오순절에 탄생한 사도행전의 교회를 연상한다. 그러나 더 넓게 생각해야 한다. 하나님의 선교(사명)를 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약 이후 교회만 불렸는가? 신약에서 교회의 선교는 구약 이스라엘의 정체성 및 역사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우리는 성경전체가 말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정확히 누구인지,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그들이 사명(mission)을 가진 백성인지 주의 깊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6)온전한 복음 : 복음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이 세상의 구속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신 일에 관한 좋은 소식이다. 그런데 위험한 것은 복음을 개인적인 죄 문제에 대한 해결책과 천국 문을 통과하게 해주는 전자카드 정도로 축소시키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다. 복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우주적 통치, 하나님 나라 회복에 관한 것이며, 이는 우리의 삶의 참여와 헌신을 요구한다. 선교를 받고, 선교에 참여하는 것이다.

크리스토퍼 라이트의 첫 챗터의 글들이 어떻게 이해되었나요? 쉽게 받아들여지는 표현들이 있는 반면에 무엇을 말하는 건지 어렵거나 불편한 표현도 있으셨을 겁니다. 이러한 글 소개가 바라는 것은 ‘무조건적인 수용’이 아니라 ‘진지한 고민’임을 다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누구이며, 무엇을 위해 여기에 있는가?’이 고민이 있을 때 우린 앞서 언급한 질문에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교를 꿈꾸고, 세우는 가정으로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앞으로 크리스토퍼 라이트 책 『하나님의 백성의 선교』 챗터별 소개와 나눔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선교적 사고가 확장되길 바라며, 선교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온 세상에서 온 교회가 온전한 복음을 통해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고 완성해가길 소망합니다. 관련한 문의사항은 함글함글팀에 연락주시면 앞으로 글을 작성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창립 35주년 특집

주님의교회 35년의 토대, 네 개의 주춧돌

주초, 초석이라고도 하는 주춧돌은 지붕과 기둥의 무게를 지탱하며, 나무 기둥의 뿌리를 땅에서 올라오는 습기에서 보호하여 썩지 않도록 하기 위해 기둥의 아래에 놓는 돌을 말한다. 주님의교회가 창립 35주년을 맞았다.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펼치고자 남다른 헌신의 정신으로 섬겨온 날들이었다. 창립 35주년을 맞은 주님의교회의 토대가 된 네 개의 주춧돌을 살펴본다.

함줄함울

첫 번째 주춧돌, 50:50

1988년 6월 26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청년여성교육원 작은 지하 세미나실에서 당시 이재철 전도사와 성도 53명이 모여 소박한 창립 예배를 올린 주님의교회의 출발은 남달랐다. 한국 사회가 오랜 정치적 질곡에서 벗어나고, 경제가 본격적인 성장 곡선을 그리기 시작함에 따라, 많은 교회가 교회의 성장과 부흥을 목회의 목표표로 여기던 시절에, 주님의교회는 ‘교회 본질의 회복’에 초점을 두고 세워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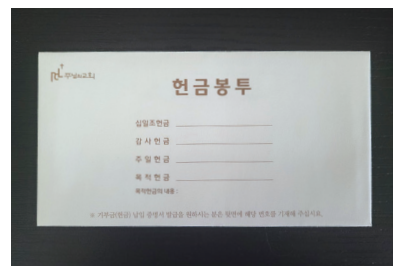
초창기 주님의교회의 기본 정신은 제1대 이재철 담임목사의 목회철학과 당시 교회 공동체의 논의에 큰 기반을 두고 있다. 창립 전야에 있었던 기도모임에서, 공동체 전원이 교회 예산의 50% 이상을 이웃 사랑의 실천을 위해 선교와 구제에 사용하기로 서원했다. 이 원칙은 뒤에 ‘50:50’이라는 원칙으로 남아 내핍과 절약으로 교회 살림을 하는 정신적인 지침이 되었다. 창립 첫 예배에 봉헌된 금액은 전액 전남 묘도 온동네교회에 헌금했다.



1988년 창립 첫 예배의 봉헌 금액 모두를 헌금한 전남 묘도 온동네교회

두 번째 주춧돌, 무기명 헌금

1989년 한 특별헌금 봉투에 누군가 이름을 쓰지 않고 봉헌한 것을 보고, 헌금 봉투에 이름을 적는 것이 옳은 일인가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해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구나”(역대상 29:14)라는 말씀에서 근거를 찾고 1991년 1월부터는 헌금자 명단을 주보에 실지 않기로 했다. 1992년 5월부터는 전 교인이 봉헌 봉투에 이름을 쓰지 않고 봉헌하기 시작했다. 우려와 달리 헌금은 계속 늘었으며, 코로나19로 교회 출석에 제한을 받았던 지난 3년 동안에도 주님의교회 헌금은 줄지 않았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정직하려는 주님의교회 헌금 정신에 따라, 사역과 봉사의 현장에서 왼손이 모르게 재물과 시간의 십일조를 바치는 숨은 교인들의 전통은 주님의교회의 보이지 않는 믿음의 실천이자 자산으로 축적되었다.



1992년부터 이름을 쓰지 않기로 하여 만든 헌금 봉투

세 번째 주춧돌, 예배당 무소유

1990년, ‘교회’란 건물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데 교회 공동체의 생각이 미쳤다. 교회의 본질을 건물이라고 오해할 때 멋진 건물 건축에 몰두하게 되고, 건축을 자산으로 인식하게 될 때 교회가 부패하게 된다. 50:50의 원칙을 따르다 보니 건축을 할 재원을 마련하기 어렵기 때문이라는 생각도 없지 않았으나, 결국 오랜 논의 끝에 예배당을 소유하지 않기로 결정했으며, 2011년 제정한 교회 정관에 실천이념의 하나로 예배당 무소유를 밝혀서 명문화했다. 정신학원에 대강당과 다목적 교육관을 지어 기증하고, 임대하여 사용하는 전통도 이 정신에서 비롯되었다. 1998년 정신학원의 대강당인 김마리아회관이 완공됨에 따라 정신학원에 기증했으며, 2002년에는 예배 및 교육 공간 확보를 위한 중강당과 생활교육관을 지어 기증했다. 2013년에는 다목적교육관을 지어 기증했으며, 2023년 새로 건축하는 정신학원 체육관 공사도 주님의교회에서 지원하고 있다.



1998년 11월 김마리아회관 준공기념비 제막식

네 번째 주춧돌, 당회원의 임기제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마태 16:18)는 말씀에 따라, 교회의 주인은 오직 주님이라는 의미에서 교회의 이름을 ‘주님의교회’라고 지었으며, 교회 공동체의 중심은 말씀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교회의 주인이 주님이므로, 특정한 개인이 교회의 주인 역할을 하지 않도록 모든 당회원을 임기제로 한 원칙도 세워졌다. 1989년에 이재철 담임목사가 10년 임기제를 제안했고, 1991년에는 장로의 임기제가 채택되었으며, 주보에서 교역자와 장로의 이름을 지우기 시작했다. 첫 담임목사였던 이재철 목사는 만 10년이 되는 1998년 스스로 퇴임하여 모범을 보였다. 당회원의 임기제는 이후 정관에도 원칙으로 기재되어, 담임목사 10년, 부목사 6년, 장로 10년의 임기제가 견고하게 자리 잡았다.



1998년 10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는 이재철 목사

주춧돌 위 세워질 아름다운 주님의 나라

주춧돌 그 자체가 건물을 뜻하지는 않는다. 다만 기둥을 고이기 위해 건물의 네 귀퉁이를 받치고 있는 작은 돌일 뿐이다. 그러나 주춧돌은 건물의 위치를 정하고, 기둥을 썩지 않게 하며, 지붕의 무게를 감당한다. 그 위에 어떤 기둥을 세워서 어떤 지붕을 올려 어떤 건물을 건축할 것인지는 이제 온전히 그 곳에 살 사람들의 몫일 것이다. 이 주춧돌 위에서 제1대 이재철 담임목사는 ‘교회 본질의 회복’을, 제2대 임영수 담임목사는 ‘건강한 영성의 회복’을, 제3대 문동학 담임목사는 ‘사회와 불신자를 섬기고 세상을 치유하는 교회’를, 제4대 박원호 담임목사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 헌신했고, 제5대 김화수 담임목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공동체’를 위한 목회를 진행하고 있다. 교회 본질을 회복하고, 사회를 섬기고 세상을 치유하며, 회복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공동체, 이 아름다운 주님의 나라를 실현하기 위한 또 다른 35년이 시작되었다.

함줄함울

35주년 창립기념
인터뷰

함께 한 35년, 함께 할 35년

주님의교회 창립 35주년을 기념하여 교회와 35년을 함께 한 은퇴장로님 그리고 교회와 나이가 같은 35세 성도님과 다음 세 가지 질문으로 나눈 인터뷰 내용을 게재합니다. 지난 35년을 추억하고, 앞으로 함께 할 35년과 그 이후를 소망하며 나눈 이야기를 보시며 스스로에게도 질문하고 답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함글함글

1. 주님의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신 계기, 그리고 교회 안의 교제 관계와 섬기는 사역 등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2. 주님의교회 지난 35년 역사에서 다른 교회와 가장 달랐던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3. 기대하시는 향후 35년, 즉 70주년을 맞을 2058년 주님의교회의 미래상을 마음껏 그려보아 주세요.

주님의교회와 시작을 함께 했기 때문에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된 계기는 주님의교회 25년사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섬기던 교회가 창립 10주년을 맞아 급속하게 증가하는 교인에 맞춰 예배당을 새로 증축하며 외형적 성장에 치중하고 물질적 성장 위주의 목회로 치달아가는 것에 회의를 느껴 참된 예배와 교회의 모습에 대한 열망이 존재하고 있을 때 마음을 함께 한 사람들이 간단한 성경공부를 규칙적으로 하게 되었고 성경공부를 인도하는 인도자로 당시 이재철 전도사를 모시고 성경공부를 한 것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금처럼 구역모임을 통해 교제를 나누었고 시무장로를 하는 동안에는 섬기지 않은 부서 없이 거의 모든 사역부서들을 섬겼습니다.

주님의교회는 우선 교회같지 않은 교회입니다. 지금은 많은 교회들이 학교의 강당에서 예배하고 있지만 교회가 학교의 강당을 나누어 쓴다는 것은 그때만 해도 새로운 시도였습니다. 또한 헌금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결코 사람에게 보여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기에 무기명 헌금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시기에 온라인으로 예배 방식이 전환되었음에도 헌금은 줄지 않고 오히려 늘어난 것은 헌금은 하나님과의 교제이며 사람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이 성도들에게 잘 훈련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50대 50이라는 원칙은 선교와 구제에 교회 재정의 절반을 사용하는 원칙으로, 예배당으로 사용되고 있는 정신학원 김마리아회관을 건축 후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원칙이 흔들린 적도 있었지만 성도들의 신앙성숙도와 진지함의 힘으로 이러한 어려움을 슬기롭게 견디어 냈습니다. 임기제 역시 사람이 아닌 주님께서 이 교회의 주인되심을 고백하며 실천하는 것으로 다른 교회와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잘 지켜지고 그것에 끝나지 말고 장년의 나이인 35세답게 결실을 맺어가는 교회가 되어가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35년전과 많이 달라진 것처럼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전도방법과 자세로 새로운 35년이 잘 준비되길 바랍니다. 그동안 여러 다양한 선교 영역에서 선교를 했지만 한국교회 뿐 아니라 세계 교회의 역사 속에서도 기념비적인 선교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성취해 가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빠른 변화의 시대이기에 새로운 세대에 신앙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하는 교육에 대한 고민도 해야 할 것입니다.

김도묵 은퇴장로

이전 교회에 다녔던 중학생 때에는, 교회 안의 교제 관계에 대해 왠지 모를 거부감이 있었습니다. 부모님 따라 교회를 가진 했지만, 마음의 문을 닫게 되니 교회에서는 내성적이고 조용히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고등부 때 '탱크목사'로 유명한 홍민기 목사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주님의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예배와 설교 말씀이 은혜가 되었고, 공과시간마다 선생님들의 노력으로 마음이 조금씩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고3때 찬양팀에 들어가면서 친구들이 많이 생겼고, 청년부에 올라가서도 청년부 찬양팀에서 지금까지 14년간 꾸준히 섬기게 되었습니다. 찬양팀과 청년부 안에서 많은 동역자들을 만나고, 함께 예배드리며 신앙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다른 기성 교회들에 비해 주님의교회가 가장 구분되는 점은,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 되시는 원칙을 세워 지금까지 잘 지켜오고 있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의 건물을 소유하지 않고, 예산의 50% 이상을 대외적으로 사용하며, 교역자 분들은 정해진 임기 안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키기 어려운 원칙이지만, 이러한 노력을 통해 주님의교회가 그 이름대로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가 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도 유유청청 사역과 QT 등 자랑할 만한 것들이 많습니다. 앞으로도 주님의교회가 교회 사역의 좋은 본보기가 되어, 한국 교회가 변화되는 계기가 되길 기도합니다.

주님의교회가 70주년이 될 때에는 저도 70세가 되겠네요. 그때는 진짜로 자동차가 하늘을 날아다니고 있겠죠?(웃음)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예배당의 공간과 거리의 장벽을 허물고 확장하는 교회가 될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시대의 변화 속 2058년에도, 가장 중요한 것들은 변하지 않고 지키며, 지역 사회와 한국에서 존경받는 교회가 될 거 같습니다. 설립 이념과 원칙을 지키고, 제가 자라온 것처럼 청소년, 청년들이 기쁨으로 예배드리고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교회, 선교사님들을 파송하며 말씀대로 복음을 전하는 교회, 지역사회에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라고 누구나 입을 모아 말할 겁니다. 교회의 역사만큼 함께 신앙생활을 해온 형제자매들과 2058년에도 함께 예배하고 QT하고 있겠죠? 오늘 쓴 글을 35년 후에 본다면, 감회가 새로울 거 같아 기대됩니다.

이민석 청년 / 청년부



35주년 창립기념
인터뷰

저는 싱가포르에서 4년 반 동안 주재원으로 근무를 하고 2018년도에 귀국했습니다. 귀국 이후 정착할 교회를 찾던 중 설교도 은혜롭고 학교 건물을 활용하는 점이 인상 깊었던 주님의교회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와이프와 댄스 같이 섬길 수 있는 봉사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고, 마침 2019년도에 유치부 교사를 모집한다는 교회 광고를 보고 지원하여 현재까지 유치부 교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름성경학교 연극을 통해서도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 행복했습니다. 코로나 전까지는 교구 겨자씨 모임에도 자주 나가고 겨자씨 식구들과 삼겹살 파티도 했었는데, 저희 가정에 아이가 생기고 코로나 시기가 겹치면서 요즘에는 겨자씨 모임에 자주 참여하지 못했지만 앞으로 다시 참여하려고 합니다.

주님의교회에 대해 가장 인상깊게 느꼈던 점은 예배당으로 학교 건물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예배당 건축이 주는 이점도 있겠지만, 대형 교회의 예배당 건축에 관한 사회의 부정적인 시선들과 건축과정에서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갈등을 이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간접적으로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주님의교회가 불편한 점들을 감수하면서 교회의 단독 건물이 아닌 학교에서 예배를 드리는 점은 다른 교회와 다른 대표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바로 겨자씨 식구들입니다. 늘 가족같이 기도해주고 식사교제를 같이 하면서 서로를 챙겨주는 마음이 매우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싱가포르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저에게는 가정교회가 큰 힘이 되었는데 겨자씨 모임도 제가 주님의교회에 정착에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러한 점들이 주님의교회가 남다른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이름대로 지금처럼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주님의"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인간은 연약한 존재이기에 교회 내에서도 다툼이 있을 수 있고,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이를 주님 안에서 해결하고 지혜롭게 잘 헤쳐나가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개인적으로는 제가 섬기고 있는 유치부 아이들이 장성해서 그들이 또 다음 세대를 위해 신앙을 전파하고 섬기는 모습도 상상해봅니다. 안동섭 성도 / 8교구

35주년 창립기념
설교 요약

주님의교회는 이렇게 세워졌습니다.

제1대 담임목사셨던 이재철 목사가 2023년 2월 25일 미국 뉴저지 갈보리교회에서 <갈보리의 인간 군상들>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했습니다. 내용 중 주님의교회 관련 내용을 다음과 같이 요약 게재합니다. 교회의 이름과 교회 여러 제도들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겨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함줄함울

교회의 이름을 짓는 것과 함께 그 교회에 속하게 될 교인들이 교회의 이름대로 살 수 있게끔 교회의 정체성과 가치관과 목표를 분명히 하고 제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에게 내가 누구냐”고 물으셨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고백 위에 너희 교회를 만들어준다고 하시지 않고 내 교회 즉 주님의 교회를 세우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이름을 지을 때 주님 오시는 날까지 특정인의 교회가 아닌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의교회”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름만이 아니라 그 이름대로 세워질 수 있게끔 제도와 강령을 만들었습니다. 목사의 교회가 되지 않기 위해 담임목사의 임기는 10년입니다. “주님의교회”에는 영원히 원로목사가 있을 수 없습니다. 장로들도 임기가 끝나면 백의종군하게 되어 있습니다. 목사는 장로는 어느 특정인이 교회를 좌지우지하는 사람의 교회가 되지 않게 한 제도입니다. 또한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건물은 예배당입니다. 교회는 제도나 건물이 아니라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의 모임입니다.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 “주님의교회”는 예배당을 소유하지 않습니다. 강당을 지어 정신여고에 기증하고 학교가 사용하지 않는 주일에 예배당으로 빌려서 쓰고 있습니다. 교회에 헌금하는 모든 헌금의 50%를 이웃사랑으로 내보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50%, 이웃을 사랑하는데 50%를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교회”는 헌금봉투에 이름을 쓰지 않습니다. 주님이 주인이신 교회인데 헌금 봉투에 이름을 쓰는 것은 사람에게 보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알게 하시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헌금 봉투에 이름을 지우면 헌금이 줄어들까봐 쉽게 이름을 지우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헌금이 모자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헌금액이 더 높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라고 헌금을 내는 기쁨을 알기 때문입니다.

“주님의교회”있으면서 했던 많은 설교를 한 줄로 요약하자면 우리 사회도, 우리 교회도, 우리 인생도 주인은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퇴임한지 25년이 지난 지금도 감사한 것은 “주님의교회”라고 이름 지은 교회가 온전한 주님의 교회로 존속될 수 있게끔 만든 모든 제도와 강령들이 지금도 지켜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주님의교회를 쓰실 때는 이름의 띄어쓰기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교회에서는 ‘주님의 교회’가 아닌 ‘주님의교회’를 표기의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라고 쓸 때, ‘본디 주님이 주인이신 모든 교회’를 뜻하는 말과 혼동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잡설 정신학원 안의 주님의교회를 말할 때에는 붙여 쓰는 것이 좋습니다.

함줄함울

청소년수련원 여름캠프
중등부

<호흡의 숲> 힐링캠프

청소년수련원 팝콘트리 중등부는 7월 21일(금)부터 23일(주일)까지 '호흡의 숲, 힐링캠프'라는 주제로 2박 3일간 원주 피노키오 청소년수련원으로 여름 캠프를 떠납니다. 2023년 청소년수련원 표어, '호흡하라 1419 who how who how'의 연장선으로 중등부 친구들이 호흡(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숨통이 트이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호흡의 숲으로 떠나는 힐링캠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청소년들은 비교와 경쟁의 사회 속에서 건강하게 숨 쉬는 방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팝콘트리 공동체는 이번 여름캠프에서 다양하고, 구체적인 기도(영혼의 호흡)의 방법을 배우고,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을 가질 뿐 아니라 다양한 활동으로 자신을 돌아보고, 나답게 사는 삶이 무엇인지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 넣어주셔서 생명(생명력)이 된 것처럼 우리도 성령 안에서 서로에게 아낌없이 생기를 나누는 기쁨을 맛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팝콘이들(중등부 친구들)이 '숲'이라는 물리적, 심적 공간에 초대되어 하나님 안에서 몸과 마음을 힐링하는 시간을 통해 '호흡의 의미'와 '제대로 호흡하는 방법'을 배우길 소망합니다. 기도로 준비하고 있는 여름 캠프를 통해 하나님께 선물 받은 숨결을 제대로 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함으로 자기 자신, 그리고 이웃과 제대로 호흡하는 팝콘이들,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내는 팝콘이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숨이 턱턱 막히는 사회에서 가쁜 호흡으로 달리던 팝콘이들의 숨통이 트이는 의미 있는 시간, 하나님을 깊이 만나 제대로 숨 쉬는 방법을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최혜원 목사 / 중등부

2023 주님의교회 중등부 여름 캠프

호흡하라 1419 WhoHowWhoHow

호흡의 숲 힐링 캠프

일시 : 2023년 7월21일(금) - 7월23일(주일)
장소 : 치악산 황둔(피노키오) 청소년 수련원(원주)
문의 : 서윤아선생님 010-6760-1210

청소년수련원 여름캠프
고등부

<Just Breathe>

7월 21일(금)부터 23일(주일)까지 고등부에서 여름 캠프를 갑니다. 주제는 'Just Breathe'로 함께 참여하는 고등부 친구들이 호흡하는 존재라는 것만으로 서로가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인지 깨닫는 시간이 되길 기대합니다.

쉬지 않고 달리기를 강요받는 사회구조 속에서 많은 청소년들이 호흡을 가다듬지 못한 채 달려갑니다. 때로는 불안과 두려움으로 더욱 숨이 가빠지게 되지요. 그러나 불안과 두려움은 한계를 가진 인간은 누구나 경험하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이번 캠프를 통해 피조물로 창조된 인간에게 있는 불안과 두려움을 그대로 인정하고, 자신에게 매몰되는 것이 아닌 호흡을 주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길 기대합니다.

캠프 주제 말씀은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요 20:22)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불어 넣어주신 숨결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생명의 호흡을 전달해줄 수 있는 비전트리 고등부가 될 수 있기를, 여름 캠프가 하나님께서 함께해주셔서 안전하고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격려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김계원 전도사 / 고등부

2023 주님의교회 고등부 여름캠프

JUST BREATHE

일시 : 2023. 7.21(Fri) ~23(Sun)
장소 : 치악산 황둔(피노키오) 청소년수련원(원주)

<신청용QR>

가정사역원

결혼예비학교 제21기 수료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가정

제21기 결혼예비학교는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가정”이라는 주제로 5월 28일부터 6월 11일까지 3주간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양근혁-임하은, 양푸른하늘-박솔비, 박종대-김정선, 정준영-김현아, 오창호-김효은, 조재희-이정윤, 최원준-김지혜 커플, 총 일곱 쌍의 아름다운 커플이 모든 과정을 마치고 수료했습니다. 처음 참여하는 결혼예비학교의 자리는 어색함으로 출발했지만, 3주간의 시간을 거치며 서로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발견하고, 사랑의 언어들로 상대를 대하며 크고 작은 많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강의(박준범 전도사)는 <하나님 나라와 결혼>을 주제로 가정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발견할 수 있는 성경적 근거와 그리스도인의 결혼 생활의 실재를 나누었고, 두 번째 강의(이정민 집사)는 <닮은 듯 다른 우리>를 주제로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는 부부가 서로의 기질과 각자의 원가족에 대한 이해가 꼭 필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세 번째 강의(전지원 집사)는 <말과 마음이 통하는 우리>를 주제로 부부간의 의사소통과 갈등 해결 방법에 대해, 네 번째 강의(김광일 장로)는 <그리스도인의 정신건강>을 주제로 염려는 멈추고 빛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신뢰와 사랑으로 생각을 채워가는 삶을 이야기했습니다. 다섯 번째 강의(신재범 집사)는 <가난한 듯 부요한 우리>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재정을 하나님의 뜻과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마지막으로 <Q&A: 토크콘서트>를 진행했습니다. 토크콘서트에서는 일곱 커플과 강의를 준비한 스텝들이 함께 솔직한 결혼생활 이야기를 나누었으며, 실질적인 결혼생활을 꾸려가는 법에 대한 깊이 있는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짧은 3주간의 시간이었지만, 수료한 일곱 커플이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가정을 꿈꾸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었습니다. 부부간의 차이들을 전문적 지식으로 다루기도 했으나, 무엇보다도 커플들의 가정에 예배가 세워지고, 부부가 함께하는 기도와 말씀의 시간이 시작되었다는 간증은 스텝들과 커플들 모두의 가슴을 뜨겁게 울렸습니다. 수료한 일곱 커플이 말씀의 반석 위에 가정을 세우고, 가정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결혼생활을 일구어가기에 소망합니다.

박준범 전도사 / 가정사역원 결혼예비학교

남선교회연합회

산상수훈

남선교회 등산모임 “산상수훈”

산상수훈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듯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주기도문, 8복 등 예수님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려 주시는 귀중한 말씀입니다.

우리 남선교회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늘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실천하기 위해 지난해 5월에 등산모임 “산상수훈”을 조직하고 매월 셋째 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에 모여 서울 근교의 둘레길을 걸으며 주님이 주신 말씀을 묵상하고 실천하는 모임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5월에는 북한산 둘레길을 걸으며 간단한 1주년 기념행사도 개최하였습니다.



매월 정기모임에는 현재 30~40여 명의 모여서 출발 전 기도로 시작해서 주님이 지으시고 가꾸어 주신 아름다운 자연을 감상하고 걸으면서 회원들 간의 서로의 고민, 현안, 기도 제목 등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고 중간 중간 쉬는 시간에는 각자 가지고 온 다과, 커피 등을 나누면서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가졌던 나눔의 모습을 실천하면서 즐거운 시간도 갖습니다. 또한 신영백 회원께서 한 달간 심사숙고 하면서 정성들여 준비한 성경말씀, 건강정보 등을 비롯하여 교회, 남선교회, 안수집사회 등의 새로운 소식을 나누면서 아름다운 교제로 영육간의 건강과 믿음 충만함으로 등산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인근에서 간단한 점심식사와 마침기도로 다음 모임을 기대하고 헤어집니다.

주님의교회 남선교회 회원은 물론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은 산상수훈 임원(회장 이형구, 총무 임정식)에게 다음 모임계획을 확인하셔서 참석하시면 믿음의 형제들과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명기 안수집사 / 남선교회연합회

통일선교주간
수요기도회

한국교회를 위한 북한 소녀의 기도

지난 6/21(수) 통일선교주간 수요기도회가 있었습니다. 국제 난민기구와 협력하여 20년간 중국 두만강 유역에서 굶주린 북한 난민에게 식량과 복음 전하는 사역을 하였던 김영길 선교사님께서 “고난의 땅 북한의 회복과 한국교회!”라는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김영길 선교사님의 조종 접경지역 사역을 들으며 현장감 있는 북한의 실상을 들을 수 있었는데, 선교사님께서는 분단된 지 75년이 되었지만 북한 땅은 아직도 끝이 보이지 않는 참혹한 현실에 놓여 있다고 하셨습니다.

+ 기도하는 북한 소녀!

두만강의 식량배급 처소에서 만난 고1 여학생 -



특히 선교사님이 한 집사님을 통해 전해들은 북한 소녀의 기도가 참으로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소녀의 기도는 세 가지였습니다. 1) 예수 믿는 우리를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2) 굶어죽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3) 남조선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소녀가 기도하듯이 우리 역시도 북한에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참혹한 고난에서 하루 빨리 벗어나고, 믿음의 자유를 누릴 수 있고, 한국교회가 깨어나도록 힘써 기도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평소 하나원 탈북민들에게 들었던 내용을 선교사님 이야기와 사진으로 다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북한 주민들은 아직도 생활고에 죽어가고 있고, 그럼에도 ‘배고프다’ ‘못 살겠다’라는 말조차도 할 수 없는 독재 체제 속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개인의 자유와 의지와 권리가 전혀 없는 짐승보다 못한 삶을 살고 있는 이들에게는 통일 밖에 없다고 외치는 소녀의 기도가 주님께서 한국교회에 주시는 큰 메시지가 아닐까 합니다. 또한 북한의 구원을 위해 선교적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라고 주시는 말씀이 아닌지 생각해봅니다.

통일선교주간 수요기도회를 통해 현재 시급하면서도 우리가 참여해야 하는 나라를 위한 섬김과 봉사, 선교가 어떤 것인지 생각해볼 수 있었습니다. 남과 북, 통일과 구원을 위해 선교현장에서 말씀으로 주님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정말 함께 기도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주님의교회 통일선교분과위원회에서는 매달 마지막 주일 류경민 목사님과 통일을 여는 기도회로 기도에 힘쓰고 있습니다. 교인 누구나 함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의 손을 모아주실 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재민 권사 / 통일선교지원부

늘푸른대학
주방봉사

늘푸른대학 주방 봉사를 하면서

장마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지만 잠시 소강상태여서 참 다행이었던 6월의 마지막 주 화요일에 늘푸른대학 배식봉사를 다녀왔습니다. 매주 화요일마다 함께하는 봉사 자리에 노란 앞치마를 두르고 예배를 드리고 어르신들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설거지와 뒷정리까지 함께하는 늘푸른대학 주방 자원봉사자들 모습을 봅니다. 멀리 여주에서 그리고 일산에서 화요일마다 참여하여 봉사하시는 봉사자들의 모습은 은혜입니다.

늘푸른대학은 2009년부터 2019년까지 11년동안은 지역사회를 위한 사회공헌과 선교를 위해 타 교회 교인들과 비신자들도 함께 출석하여 운영이 되었지만 코로나 이후 2023년부터는 주님의교회 교인으로 한정해서 등록을 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방 자원봉사도 코로나 이전에는 각 여전도회에서 돌아가며 봉사를 하였으나 2023년부터는 자원봉사팀에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필수 인원은 15명 정도인데 봉사자들이 모자라서 그 시간은 모두들 바빠 움직이며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참여하는 봉사자 평균 연령도 68세이고 은퇴하신 두 분 장로님도 함께 봉사해주십니다.

장마철이지만 봉사를 함께 하는 오늘도 햇살이 환하게 웃는 하루, 즐거움과 여유로움으로 가득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언제 보아도 반가운 봉사자들~ 어제까지 쏟아지던 비 덕분에 더욱 맑게 개인 파란하늘을 바라보며 설거지를 하느라 스며들었던 땀방울이지만 봉사를 마치고 집으로 향해 가는 길은 살랑 불어오는 바람이 마음의 더위를 식혀주었습니다.

한 주만 지나 7월 첫 주면 여름방학이지만 2학기에도 자원봉사에 많이 지원하여 함께 봉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신형섭 장로



겨자씨이야기
6교구

믿음과 사랑으로 함께하는 겨자씨

2010년에 시작하여 13살이 된 신(믿음)애(사랑) 신애 겨자씨 이름은 박희문 집사님께서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지금 모임에 참석하는 가족은 박희문 집사, 설희정 권사, 이정례 집사, 김운섭 집사, 정순모 권사, 이구한 집사, 이윤주 집사, 김난희 집사, 이광실 권사입니다. 아들과 딸이, 손자 손녀가 잘되기를 기도하는 부모,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50대에서 80대까지 나이는 달라도 세대 차이는 느낄 수 없고 믿음은 있으며 사랑이 가득하고정이 넘치는 가족들입니다.

코로나 전에는 가정마다 돌아가며 겨자씨 모임을 하고, 집밥으로 서로 대접하며 교제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18개월 전에 류경민 목사님께서 강동구에 사는 저를 중랑구 신애 겨자씨 섬김으로 파송시켜 주셨는데 처음에는 낯설고 어색하여 불편했지만 반겨주시고, 사랑으로 감싸 주셨기에 잘 적응할 수 있었고 이제는 함께함의 즐거움을 느끼며 함글함글 하고 있습니다. 첫 만남은 Duo 영상 모임 때 좁은 화면으로 부부 얼굴을 번갈아 비추어 주시기도 하고 한 화면으로 같이 보시면서 함께 하던 그때가 이제는 기억으로만 남아 있는 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교회에서 국수를 먹으며 교제를 하는데 국수를 먹다 보면 떡과 과일, 계란, 음료, 차 등 먹거리가 가득해집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_잠언 13장 1절

집사님, 권사님들과 함께하는 시간은 늘 따뜻하고 사랑이 넘쳐납니다. 우리는 늘 지난 시간을 생각하면 아쉬워할 때가 있지만 어쩌면 지금이 가장 좋을 때고 가장 건강할 때 우리가 함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땅에서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도 하고 건강을 잃고 힘들 때는 주님을 원망하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주님을 바라보며 위로받고 견디며 감사하게 됩니다. 선물로 받은 하루를 헛되이 보내지 않고 최선의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며 그 사랑과 받은 은혜 힘을 얻어 소망을 갖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하나 된 6교구 신애 겨자씨 가족이 모이는 날에는 이 세상을 다 갖고 있는 사람처럼 행복해서 겨자씨 가족들이 아프지 않게 해주시고 오래 함께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_ 잠언 16장 9절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주님께서 사랑하는 신애 겨자씨 가족들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길 그리고 가정마다 기도하시는 기도 제목마다 응답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이광실 권사 / 6교구 신애 겨자씨

너나들이부

홈커밍데이, 너나들이의 잔치!

믿는 자,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아야 하고, 삶의 이면에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손길이 있다는 믿음으로 매일 매일을 살아간다. 그러나 정작 일상의 크고 작은 파도에 휩쓸려 가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신의 능력, 경험, 지혜로 세상의 파도를 넘나든다. 마찬가지로 신앙공동체에서의 사역도 세상적인 삶의 연장으로 이어지고, 교회에 오면 모두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즉 경건의 모습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상실한 채 교회의 마당만 밟고 다닌다. 나 또한 그러한 믿음 있는 척하는 하나님의 백성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믿음 약한 자를 믿음 강한 자로 이끌어 가신다. 이러한 하나님의 열심을 보게 한 사건이 이번 통일선교주간의 너나들이부의 Home-coming day였다. 이번 행사는 당초 통일선교주간의 일정에 없는 계획이었다. 너나들이 초기부터 헌신한 모 권사님이 그동안 결혼한 가정도 여러 있고, 오랫동안 나오지 못한 너나들이 친구들도 많이 있으니 코로나 이후 처음으로 모두를 초청하는 “Home-coming day”를 제안하여 시작되었다. 통일선교주일(6월18일)까지 준비기간이 10일 정도로 너무 짧아서 작은 모임으로 기획하고 준비하였다. 결혼가정, 장기 미참석자, 너나들이 청년들에게 참석여부를 확인하고, 교회 내에서도 그동안 너나들이 사역을 감당한 장로님, 집사님들에게 참석을 부탁하면서도 과연 몇 분이나 참석할지에 대해 회의적이었다. 통일선교주일 사흘 전까지 약 30명이 참석하는 것으로 중간집계가 되어 이에 맞추어 식사, 선물 등 행사 일정을 잡았다. 그러나 행사 이틀 전에 점점 참석인원이 늘어나 50명 이상 참석할 것이라는 확신을 주었다. 통일선교주일 당일 너나들이 집사님, 청년들과 함께 4부 예배를 마치고 5층 너나들이 모임 장소에 갔을 때 그 공간이 부족할 정도로 많은 성도님들이 참석하였다. 역시 잔치는 손님이 많아야 축제가 된다. 결혼가정 4가정, 장로님이 8명, 타부서 집사님과 권사님들 9명, 내빈인사, 너나들이 가족 25명, 아이들 3명 등 모두 53명이 참석하였다. 행사준비도 권사님과 집사님들의 헌신과 기증으로, 식사와 간식, 실내 장식, 명찰 준비, 안내 등 모든 것이 잘 준비되었다. 또한 류경민 목사님의 능숙한 사회로 너나들이 선배들의 질의응답은 모두가 하나 되는 기쁨의 시간이었다. 갑자기 시작한 Home-coming day는 너나들이 10년의 역사 가운데 최고의 잔치, 너나들이의 축제가 되었다.



우리는 이번 행사를 통하여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또 한 번 깨닫게 되었다. 하나님이 각자의 마음을 움직여 너나들이 행사에 많은 성도님들을 보내주셨고, 너나들이 멘토님들의 헌신과 수고로 풍성한 잔치가 되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한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들의 협력, 헌신, 봉사로 세워짐을 보여 주셨다. 그러나 향후 너나들이 신앙공동체의 앞날은 순탄치 않다고 생각한다. 탈북청년들의 사회진출의 어려움, 국가지원의 중단, 건강의 악화, 사회적 차별 등 이들의 한국사회 정착의 어려움은 자신과의 지난한 싸움이 될 것이고, 믿음의 시험대가 될 것이다. 성도님들의 관심과 후원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이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들을 지켜 줄 것이고 이들을 통일과 선교의 주역으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믿는다.

김기연 집사 / 너나들이부

교회사용설명서⑦

미취학 어린이를 위한 교회학교

사용하기 전에 알아야 할 정보

‘미취학 어린이’란 아직 학교에 다니지 않는 어린이를 말합니다. 아직 엄마 품에 있는 아기부터, 모르는 건 모르지만 알 건 다 아는 개구쟁이들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워낙 나이에 따른 특성과 편차가 크기 때문에 주님의교회 교회학교에서도 연령대에 따라 여러 단계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용 방법

교회학교는 연령대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성됩니다. 특별히 주님의교회에서는 미취학 어린이들을 위한 교회학교를 유아숲, 초등학생들을 위한 교회학교를 유소년숲, 중고등학생들을 위한 교회학교를 청소년숲으로 묶어서 부르고 있습니다. 어와나는 복음, 성경, 재미, 훈련, 리더십의 5가지 사역 원리로 운영되는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해당 시간에 해당 장소를 찾아가시면 반갑게 맞아주실 것입니다.

	이런 어린이들이	이 시간에 이 곳에서	이런 내용을 배워요
하임 아기부	15개월 이하 아기와 부모님	(주일) 오전 11:00 아기부실(지하1층)	하임 아기부 는 태어나서 15개월까지의 아기들과 부모가 함께 하는 부서입니다. 부모가 하나님 앞에 건강한 믿음으로 서 있을 때 축복으로 허락하신 아기와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세워갈 수 있습니다. 하임 아기부는 부모와 함께 하는 예배를 드리며, 반별 나눔을 통해 서로 마음을 나눕니다.
아기정원 아기학교	18~40개월 아기와 부모님	(목요일) 오전 10:00 유아부실(1층)	아기정원 은 유아숲의 주중 교회학교로 영아 또는 유아가 엄마와 함께 하나님 말씀을 오감으로 경험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건강한 자녀로 자라도록 돕는 유아교육인 동시에 부모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아기정원을 통해 엄마는 아이와 함께 놀고, 찬양하고, 예배함으로 신앙적 양육을 배우면서 기쁨과 보람이 있는 시간을 보냅니다. 따라서 아기정원은 아기가 다양한 놀이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아기를 위한 학교인 동시에 육아에 지친 엄마들이 아기와 함께 즐거움을 경험하면서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말씀을 행복하게 배우는 엄마들을 위한 학교가 되기도 합니다.
센싱더스토리 유아영성나무	6~7세 어린이	(수요일) 저녁 7:20 유아부실(1층)	센싱 더스토리(Sensing TheStory) 는 그 이름에 이미 나타나 있는 것처럼 성경의 이야기를 교구를 이용하여 모든 감각으로 경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성경의 이야기 속으로 어린이를 초대하여 그 이야기를 어린이가 재현함으로써 어린이가 성경 이야기 속에서 머물며 성경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합니다.
하늘씨앗 • 영아1부 • 영아2부	15개월~3세 아기와 부모님	(주일) 오전 9:00 (주일) 오전 11:00 영아부실(1층)	하늘씨앗 영아부 는 아장아장 걸음마가 익숙해지기 시작한 15개월부터, 밖에서는 과묵하지만 집에서는 조잘조잘 말문이 트기 시작한 3세까지 아기 예배자들의 예배터입니다. 유아들은 엄마 아빠와 함께 예배하면서 예배 예전을 배우고 작은 예배자로 성장하며 부모는 영아부 예배를 공예배로 인식하며 예배자로서 바르게 예배드림으로 자녀에게 믿음의 본을 끼치도록 교육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아숲 레터’를 통해 부모를 자녀의 신앙교사로 세우고 가정이 신앙교육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고 있습니다.
싹트네 • 유아1부 • 유아2부	4~5세 어린이	(주일) 오전 9:00 (주일) 오전 11:00 유아부실(1층)	싹트네 유아부 는 4, 5세 유아들이 부모님과 떨어져 또래들과 공동체로서의 첫 예배를 드리는 부서입니다.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말씀과 찬양, 예배 프로그램을 통해 매 주일 신나고 즐거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교사들은 어린이들을 돌보는 사람이 아닌, 예배자의 모습으로 유아부를 섬기고 있습니다. 주일 이후에는 가정에서 ‘유아숲 레터’를 통해 부모를 자녀의 신앙교사로 세우고 가정이 신앙교육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고 있습니다.
어와나 커비스	5~6세 어린이	(토요일) 오전 9:50 유아부실(1층)	어와나 커비스(Cubbies) 는 5~6세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성경 이야기, 아이들의 특성에 맞춘 게임과 특별활동 그리고 말씀 암송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의 탁월한 리더로 성장하도록 훈련하는 2년 과정의 어와나 클럽입니다. 어와나(AWANA)는 딤후 2:15 말씀을 근거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바르게 성장하여 세상을 분별하고 자신을 주 안에서 단련시켜 주께 인정받고 부끄러울 것이 없는 크리스천 리더로 양육하기 위하여 복음, 성경, 재미, 훈련 리더십의 5가지 사역원리로 운영되는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담쟁이 • 유치1부 • 유치2부	6~7세 어린이	(주일) 오전 9:00 (주일) 오전 11:00 유치부실(지하1층)	담쟁이 유치부 는 6,7세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말씀과 찬양으로 매주일 감동과 기쁨 안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일에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더 쌓아가며, 반별 활동을 통해 믿음의 공동체 속에서 행복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주일 이후 가정에서는 ‘유아숲 레터’를 통해 부모를 자녀의 신앙교사로 세우고 가정이 신앙교육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고 있습니다.

관리법과 주의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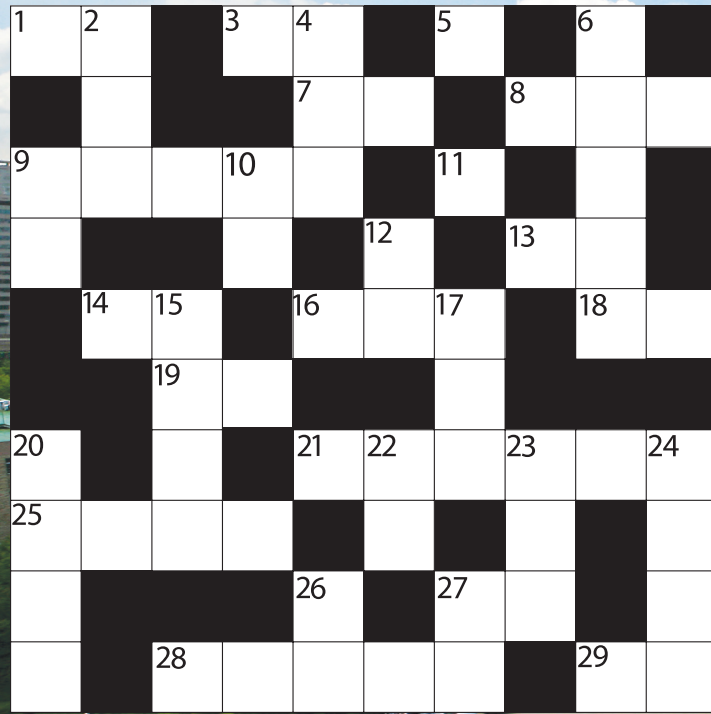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오늘 우리의 아기들을 교회학교에 데려가는 일입니다. 또래 아기들과의 공동체 활동을 통해 사회성을 키우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올바른 삶의 기초를 닦을 수 있는 정말 중요한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교회학교에서 만나요!

함글함글

가족과 함께 풀어보는 성경 십자말풀이
주님의교회 창립 35주년 기념편

이번 호는 주님의교회 창립 35주년을 기념하여 만들었습니다. 이번 호 <함즐함울>과 <주님의교회 정관>, <주님의교회 25년사> 등을 보시면 쉽게 풀실 수 있습니다. 정답은 다음 호에 발표합니다. (이번 호 십자말풀이 정답자 중 5명을 추첨하여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응모방법은 12면을 참고하세요.)

교구 : 이름 :



468호 '역대하' 편 정답



가로 힌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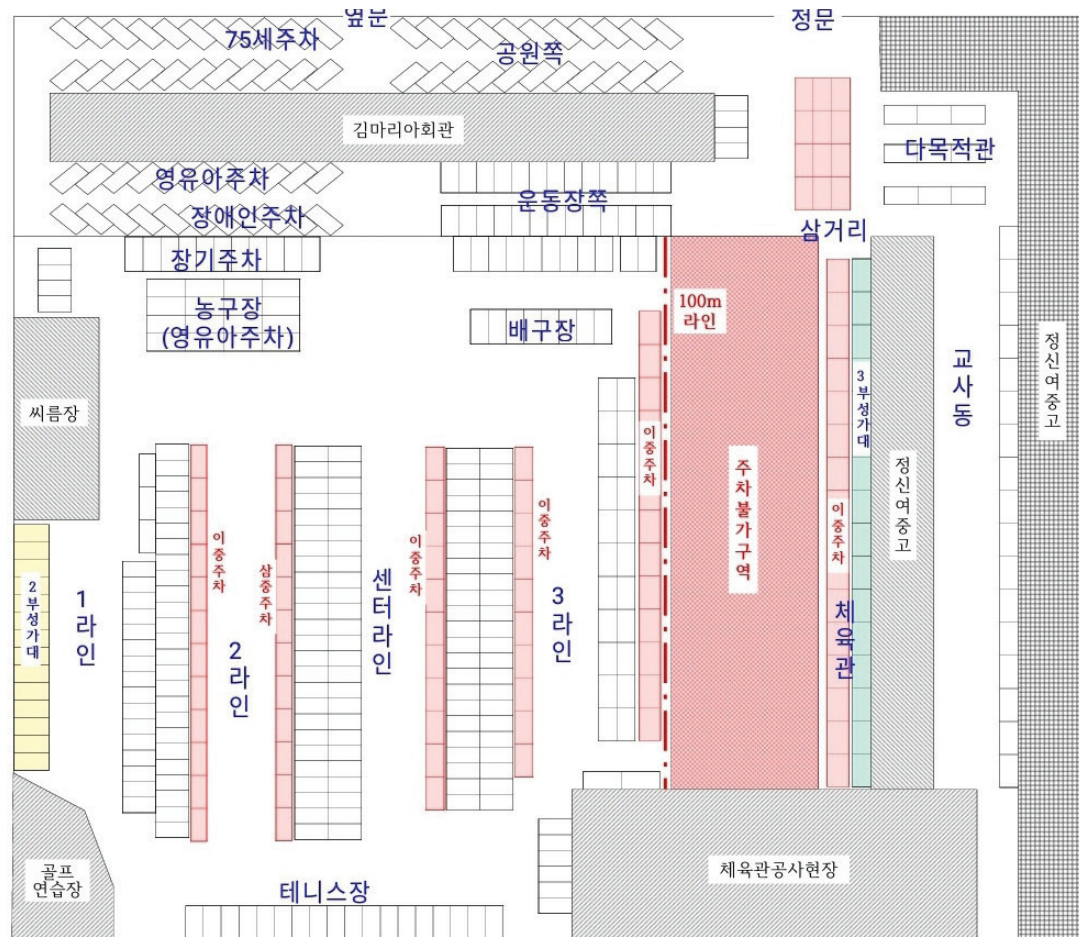
1. 이번 십자말풀이의 킬러 문항. 구약 성경 가운데, 남유다 왕국의 역사를 정리한 역사서 중 하권을 이르는 약어이다. 에스라가 쓴 것으로 알려져 있다. 큰 새우를 뜻하는 말이기도 하다.
3.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 주님의교회는 교회 창립 정신의 근간이 이것임을 정관에 밝히고 있다.
5. 주님의교회의 주인이 되시는 분. 주님의교회는 이분이 주인 되시는 교회를 구현하려고 힘쓰는 교회이다.
7. 교회 안에서 직무상 담당하는 본분. 주님의교회에서는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서리집사 등을 말한다.
8. 어떤 직분에 임기를 두어 지키는 제도. 주님의교회에서는 교역자와 시무장로에 대하여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9.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4길 16 정신학원 내에 있는 교회.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평남노회에 속한다.
13. 하나님에게 자신이 가진 귀중한 것을 올리는 것. 헌금도 이것의 하나이다.
14. 하나님의 뜻에 따라 복음을 전하는 일. 주님의교회는 교회 창립 정신의 근간이 이것임을 정관에 밝히고 있다.
16. 교회 예배 중에 찬양을 맡은 조직. 주님의교회에는 호산나, 시온, 샬롬, 임마누엘 네 부서가 있다.
18. 음식이나 물을 일정 기간 먹지 않는 것. 또는 건강을 유지할 정도의 물이나 간단한 음식만 먹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기독교에서는 영적인 훈련을 위해 이를 통해 기도하기도 한다.
19. 원래의 상태로 돌아감. 주님의교회 제1대 이재철 담임목사는 '교회 본질의 이것'을 위해 목회했다.
21. 예배당을 소유하지 않는 것. 주님의교회 공동체는 '교회'란 건물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생각을 바탕으로, 예배당을 소유하지 않는 것을 실천이념으로 삼고 있다.
25.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는 것. 교육을 통해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을 형성하고,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소질을 발견하도록 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웃을 섬기며 사랑하는 인간 본연의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7. 양전기와 음전기가 공중에서 방전되면서 나타나는 기상현상. 성경에서는 주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묘사나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을 상징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느닷없이 만나는 모임을 이것이라 부르기도 한다.
28. 청소년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역. 주님의교회에서는 이 사역에 노력하는 것을 실천이념으로 정관에 밝히고 있다.
29. 주로 바위틈에 형성된 벌집에서 채취한 꿀.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메뚜기와 이것을 먹고 살았다.

세로 힌트

2. 전지전능하시며 온 세상을 지으신 분. '여호와', '주님' 등으로도 불린다.
4. 교회에서 행정적인 분야의 주요 의사 결정을 위한 의회. 주님의교회에서 이 회의의 회원은 담임목사, 부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전도사 및 서리집사로 구성된다.
6. 헌금을 할 때 봉헌자의 이름을 밝히지 않는 것. 주님의교회에서는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구나이다" (역대상 29:14)라는 말씀에 바탕을 두어 이를 원칙으로 삼고 1992년 5월부터 전교인이 봉헌 봉투에 이름을 쓰지 않고 봉헌하기 시작했다.
9. 교회 안에서 주일마다 발행하는 작은 정기간행물. 예배 안내와 교회 소식, 공지 사항 등이 들어 있다.
10. 교회에서 교인들을 지역으로 구분하여 만든 조직 체계. 주님의교회 교구는 지역 단위로 7개, 젊은이교구 1개를 포함 8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구 아래 가장 작은 소그룹인 겨자씨가 있다.
11. 신약 성경 가운데 야고보서를 부르는 약어. 아플 때 증상의 완화나 치료를 위해 의사의 처방을 받아 약국에서 조제하는 작은 것을 말하기도 한다. 아기들이나 강아지들은 이것 먹기를 싫어한다.
12. 교회 안에서 예배를 포함한 교회의 일상이 원활하게 유지되는데 필요한 모든 기능을 수행하는 사역 부문. 주님의교회에는 예배분과, 음악분과, 소그룹분과, 젊은이분과, 양육분과, 봉사분과가 소속되어 있다.
15. 어린이와 청소년의 기독교 교육을 위해 운영되는 교회 안의 교육 부서를 포괄적으로 부르는 명칭. '주일학교'라고도 한다.
17. 큰 집회나 모임을 위해 건축되었으며, 안에 많은 좌석과 무대가 있는 건물. 주님의교회는 정신학원의 이것인 김마리아회관을 지어 기증하고 임대하여 예배당으로 삼고 있다.
20. 1886년 미국 북장로회 소속 선교사인 애니 앨러스가 서울 중구 정동에 설립한 학교. 지금은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다. 1969년 창단한 노래선교단이 유명하다. 주님의교회와 긴밀한 협력 관계를 갖고 있다.
22. 다른 사람을 도와주거나 보살펴주려는 마음과 행동. 방탄소년단 지민이 이것의 왕이라고 알려져 있다.
23. 태양 반대쪽, 물방울이 떠 있는 하늘에 형성되는 기상현상. 주님의교회에서 해마다 5월에 펼치는 축제를 '이것 축제'라고 부른다.
24. 교회를 이끌어갈 다음 세대를 주님의교회에서 부르는 약어. 유아숲, 유소년숲, 청소년숲, 청년부를 함께 부르는 말이다.
26. 올해 주님의교회의 나이. 주님의교회는 1988년 6월에 창립되었다.
27. 한 언어로 된 텍스트를 다른 언어로 옮기는 일. 성경의 이것은 시대와 언어에 따라 다양하게 이루어졌다. 주님의교회는 성경의 개정개역본을 사용하고 있다.

주차구역안내

주님의교회는 주일에 정신학원의 넓은 운동장을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고 많은 사역자들이 주차안내를 하고 있지만 점점 많아지는 차량으로 인해 주차와 출차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시되 차를 가지고 올 수밖에 없는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 전용구역을 별도로 지정하여 운영하니 이웃사랑의 마음으로 이해하고 전용구역을 잘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영유아주차는 36개월미만 영유아 동반차량이며, 아기부와 영아부에서 나눠드리는 영유아동반 차량 주차증을 가지고 있는 차량만 주차할 수 있습니다. 영유아동반차량은 사역자들이 영유아 동반차량임을 인지할 수 있도록 창문을 열고 주차증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2부와 3부 찬양대는 오랜 시간 주차로 인해 다른 차와 섞여 주차할 경우 출차에 혼란을 초래하여 양쪽으로 배치한 것이니 오해없으시길 바라며, 입차차량이 많을 경우에는 그림(홍색부분)과 같이 이중/삼중주차를 합니다. 예배드리러 늦게라도 오시는 성도님들을 돌려보낼 수는 없으니, 출차가 다소 불편하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은혜를 되새김질하며 여유를 가져주세요.

정문 출차시에는 꼭 방향등을 켜시고, 승하차를 위해 잠시 정차시에는 비상등을 켜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교내에서는 반드시 서행(시속 15km 이하)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안내부

교회일정

- 7/2(주일) 성찬주일
7/5(수) 교구연합수요기도회(3교구)
7/9(주일) 정기당회

알립니다

1. 유아숲 여름성경학교

- 주제** : "믿음의 사람, 나예요!" (삼상16:7b)
일시 : 7/8(토) 오전 10:00, 7/9(주일) 각 부서 예배시간
장소 : 중예배실, 각 부서 예배실
대상 : 미취학 어린이(아기부, 영아부, 유아부, 유치부)

2. 제9회 정신포럼특강(선배와 함께하는 토크콘서트)

- 일시** : 7/7(금) 오후 4:00 대예배실
강사 : 김효정(정신여고동문, 바이오아라 대표이사)
주제 : "Fearless(두려움없이 세상과 맞서)"
대상 : 정신여중고학생, 교사, 학부모, 주님의교회 교인 및 지역사회 주민
문의 : 임경순 목사(010.8466.0605)

삶의 힘이되는 목소리

주님의교회
전화상담

02) 416-5183

오후 1:00~5:00

교회와 신앙에 대해 고민이 있으신가요? 자격을 갖춘 상담사가 귀 기울여 듣고, 함께 기도해 드립니다.

▶ 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상담이 진행됩니다.

신앙문제 / 대인관계 / 부부갈등 / 자녀문제 / 시댁문제 / 기타문제

함줄함울

발행인 : 김화수

편집인 : 김낙균

발행처 : 주님의교회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4길 16 정신여고 내

02)416-5181~2 www.pcltv.org

편집 : 홍보출판부

〈함줄함울〉은 주님의교회가 발행하는 문서선교지입니다. '함줄함울'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로마서 12:15) 말씀에 바탕을 두고, 교회 안팎의 모든 사람들과 함께하려는 뜻을 담은 이름입니다.

교회 공동체 여러분의 좋은 글, 소식, 간증, 기사제보를 기다립니다. 이메일 : pclhamletter@naver.com



주님의교회

2023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진행되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



유아숲	7.8 (토) ~ 9 (주일)	주님의교회
유년부	7.29 (토) ~ 30 (주일)	
초등부/소년부	7.28 (금) ~ 30 (주일)	치악산 황둔 청소년 수련원
중등부/고등부	7.21 (금) ~ 23 (주일)	
청년부	8.11 (금) ~ 13 (주일)	주님의교회
EM	7.22 (토) ~ 23 (주일) • 26 (수)	

- 초등부, 소년부는 주일 교회도착 후 11시 예배를 드린 후 마칩니다.
- 중등부, 고등부는 수련회 장소와 주님의교회에서 각각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응모방법

이번 호 십자말풀이 정답자 중 5명을 추첨하여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응모하시면 됩니다!

- 〈함줄함울〉 지면에 있는 십자말풀이 칸에 손으로 정답을 기입합니다.
- 십자말풀이 칸 위에 교구, 이름을 적습니다.
-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어서 010-2951-4487로 문자로 보냅니다.
- 마감은 2023년 7월 15일 밤 12시입니다.
- 정답자가 많을 경우에는 5명을 추첨합니다.